민츠버그의 빈 유리병 탈출 전략

임 경 수 교수의
라이프롱 디자인

빈 유리병에서 누가 먼저 탈출할까?

1982년 고든 시우 박사의 꿀벌과 파리 간의 탈출 경쟁 실험이다. 우리가 어렸을 때 쉽게 실험을 했듯이 파리는 빈 병의 여기저기를 온몸으로 부딪치다 마침내 뚜껑이 없는 병 입구를 유유히 빠져나간다.

그런데 꿀벌은 꼼짝없이 유리병에 갇혀 죽음을 맞이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고든 시우 박사의 실험 조건은 단순하다. 빈 유리병을 가로로 눕히고 햇빛이 들어오는 유리창 쪽으로 병 바닥이 향하게 놓았다.

유리병 안에 함께 있던 파리들이 2분간의 좌충우돌 끝에 여섯 마리 모두 입구를 찾아 빠져나가는 사이, 꿀벌들은 본능적으로 햇빛이 있는 유리창 쪽을 향해 몰려들었다. 그 반대편에 열려 있는 병 입구 쪽으로는 언감생심 날갯짓 한 번 않은 채 여섯 마리 모두 지치거나 배고픔으로 쓰러지고 말았다.

이 실험에서 파리가 꿀벌을 압도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좌충우돌하며 본능적으로 길을 텄을 뿐, 꿀벌의 길을 막은 적이 없다.

플라톤의 동굴 비유로 따지면 꿀벌은 죄수들과 다름없다. 플라톤의 죄수들은 벽면을 향해 앉아 있으면서 자신들이 보는 것만이 실재라고 우긴다. 그러나 벽면에 비친 건 태양빛에 드리워진 그림자일 뿐이다. 여섯 마리의 꿀벌은 벽면에 비친 그림자가 실재라고 생각하며 죄수의 족쇄에서 풀려나지 않는 것과 같다.

이 실험을 통해 고든 시우 박사가 던진 메시지는 이렇다. 벌들이 실패한 것은 날기를 좋아하는 마음이며, 바로 그들의 지성 때문이다. 그들은 분명히 모든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 빛이 가장 밝게 비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그리고 그들은 그에 따라 행동하고 지나치게 논리적인 행동을 고집한다.

반면, 논리에 무관심한 멍청한 파리들은 이리저리 맹렬하게 날며 여기서 종종 단순한 것을 기다리는 행운을 얻는다. 필연적으로 그들에게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우호적인 기회를 발견하는 것이다.

전략의 대가라고 불리는 헨리 민츠버그 교수는 꿀벌과 파리의 실험을 놓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의도된 전략((Intended Strategy)과 창발적 전략(Emergent Strategy)을 구분해 냈기 때문이다. 평생 디자인이라는 이 칼럼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다.

꿀벌은 유리병에서 나가려는 의도된 방향(빛이 들어오는 쪽)을 고집하지만, 그 전략은 실패로 끝난다. 이는 인생이 처음에 세운 계획이나 전략이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할 때를 상징한다. 꿀벌의 행동은 의도된 전략에 해당한다.

파리는 특정한 방향을 고집하지 않고 여러 방향으로 시도하면서 결국 유리병을 탈출한다. 이는 계획되지 않은 대로 인생이 유연하게 환경에 대응하며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는 모습을 상징한다. 파리의 행동은 창발적 전략에 해당한다.

인생은 처음에 의도한 계획이 아니라 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기회에 맞춰 유연하게 전략을 수정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발현전략은 현실에서 인생이 직면하는 불확실성과 복잡성 속에서 효과적인 전략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교수·성인학습지원센터장

'수주 호황' 조선업계, 노사 갈등으로 위기 올 수도

기자 수첩
양 성 운
〈산업부〉

'슈퍼사이클' '수주 호황'

최근 3~4년 사이 벌어진 일이다. 조선업계는 지난 2010년대 들어 수주 절벽으로 인한 일감부족에 시달렸다.

당시 울산을 비롯해 거제, 영암 등 조선소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은 다른 일자리를 찾아 회사를 떠나야만 했다. 이 때문에 지역 경제도 곤두박질 쳤다. 오랜기간 이어진 조선업계 불황은 좀처럼 탈출구를 찾지 못했다.

이들의 기다림 끝에 2020년도부터 조선업계는 봄날을 맞기 시작했다. 조선소에서 신규 선박을 건조할 공간이 부족할 정도로 많은 일감과 새 수주계약도 연이어 따내며 어느 때보다 즐거운 시기를 맞았다.

하지만 이같은 고난을 이겨낸 현재 조선업체들은 노조와 갈등으로 또다시 위기를 맞았다. 바로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을 둘러싼 갈등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는 최근 조선업계 실적 상승에 따른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측은 파업이라는 카드까지 꺼내들며 사측을 압박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국내 주요 조선사가 포함된 조선업종노조연대(이하 조선노연)은 부분 파업을 진행했다. 지난 4일과 6일에는 HD현대중공업 노조가 각각 4시간과 3시간 부분 파업을 진행했다. 10일과 11일에는 오후 1시30분부터 4시간 동안 전 조합원이 파업에 나선다. 노조가 제시한 올해 임단협 요구안에는 ▲기본급 15만9800원 정액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성과급 산출 기준 변경 ▲명절비 인상 ▲정년 연장 ▲임금피크제 폐기 등이 담겼다.

반면 사측은 과거 수주 절벽에 따른 위기를 경험했기 때문에 향후 불황에 맞설 성장동력과 체력을 키우기 위한 경영 정상화도 함께 추진하고 있어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내 주요 조선사들의 경우 수년간 쌓인 누적 적자 및 미래 수주 불확실성 등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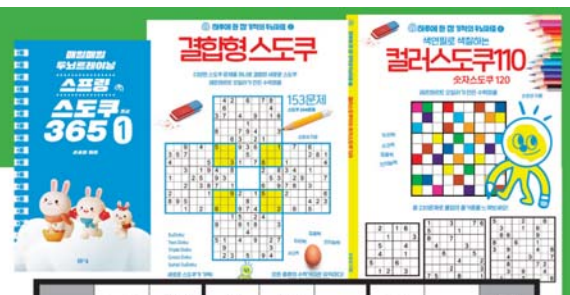
한화오션 노조(대우조선지회)도 실적 목표 달성 시 지급하기로 한 300%(기준임금 기준)의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지난해 실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처럼 노사 갈등이 장기화 될 경우 조선업계의 미래는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오랜 침체기에서 벗어나 수주 호황기를 맞았지만 파업 등의 여파로 이 기회가 한순간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호황기 노사 갈등에 따른 이미지 실추보다 협력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길 기대해 본다.

/ysw@metroseoul.co.kr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생각하는힘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스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3		1				5		
			4			2		
	2							4
6		8					7	
4								9
	1					4		6
8							2	
		3			6			
		9				6		1

	7	3	1	9		6		5
				8				
9					7			
3								
	9						5	
								7
			8					4
				1				
8		1		6	2	7	9	

문제출제: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3	4	1	2	8	9	5	6	7
5	8	6	4	1	7	2	9	3
9	2	7	6	3	5	8	1	4
6	9	8	5	4	1	3	7	2
4	3	2	7	6	8	1	5	9
7	1	5	3	9	2	4	8	6
8	6	4	1	7	3	9	2	5
1	5	3	9	2	6	7	4	8
2	7	9	8	5	4	6	3	1

2	7	3	1	9	4	6	8	5
5	1	4	2	8	6	3	7	9
9	6	8	5	3	7	2	4	1
3	4	6	7	5	1	9	2	8
7	9	2	3	4	8	1	5	6
1	8	5	6	2	9	4	3	7
6	2	9	8	7	3	5	1	4
4	3	7	9	1	5	8	6	2
8	5	1	4	6	2	7	9	3

오늘의 운세

9월 10일 (음 8월 8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어려운 친구 따돌리거나 비방하지 않도록. **48년생** 불행은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훨씬 커지니. **60년생** 고기를 많이 잡으려면 그물을 쳐라. **72년생** 기다리면 오게 마련이니 공부를 하면서. **84년생** 미루지 말고 오늘 청소는 오늘 해야.

37년생 집안이 건재하려면 배우자가 건강해야 하니. **49년생** 작은 일에 흥분하지 말고 일을 신념으로. **61년생** 자식의 미래가 내 미래이니 이혼은 신중. **73년생** 배우자가 옆에 있어도 외로움을 느끼는 날. **85년생** 뜻밖의 행운이니 기다리자.

38년생 원하는 바를 기도 발원해보자. **50년생** 이러저러한 사람을 가리지 않고 살펴주니 복이 들어온다. **62년생** 실력을 키우는 것이 큰 자산이다. **74년생** 직장 윗사람에게 지켜야 할 도리가 있다. **86년생** 가슴속에 묻어둔 벗이 찾아온다.

39년생 원수를 외나무다리에서 만나니 퍽 난감하다. **51년생** 자기결함을 고치는 것이 길의 지름길. **63년생** 사랑이 찾아오니 자식에게 좋은 일이 생긴다. **75년생** 보편적 좋은 것이 좋은 것을 부른다. **87년생** 돈 문제 여자 문제 머리 아픈 날.

40년생 하늘이 맑고 공기까지 좋으니 마음도 편안. **52년생** 정보를 잘못 알 수도 있으니 다시 살피자. **64년생** 귀인을 만나면서 투자도 무난하게 진행된다. **76년생** 무슨 일이든 한쪽이 양보할 수밖에. **88년생** 남을 도우니 결국 복으로 전환.

41년생 운이 호전되어 금전이 따르는 하루. **53년생** 동료와 협업이 서로에게 이로움을 준다. **65년생**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이니 우선 시작을. **77년생**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다면 만나보라. **89년생** 나쁘다는 담배를 끊어보는 것도 실행해보자.

42년생 남의 얘기를 들어보는 것도 미래를 보는 통찰력일 수. **54년생** 새로운 일에 두려움을 갖지 말고. **66년생** 놓친 고기가 더 커 보이는 법. **78년생** 종교나 정치에 관여하기보다는 자신의 업무파악을 우선. **90년생** 술이 술을 부르니 어찌하나.

43년생 부분적 결함이 전체를 망칠 수 있다. **55년생**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니 우선 의견통일. **67년생** 생각지 않은 초대로 하루가 즐겁다. **79년생** 다툼이 생길 수 있으나 조력자가 있어 안심. **91년생** 게으르니 뭘 먹고 살꼬 서러워라.

44년생 행복은 주변에 있으니 주변을 보살펴라. **56년생** 건강이 우선이니 먹는 것에 주의. **68년생** 서운한 마음이 들어도 숨기는 것이. **80년생** 타고난 재능도 있겠으나 꾸준히 노력으로 해내자. **92년생** 하늘과 땅이 움직일 수 있도록 기도해라.

45년생 분수를 지킨다면 실수가 적다. **57년생** 자신의 특기를 큰 자랑으로 생각하나 실상은 별거 아니다. **69년생** 공과 사를 구별하여 바르게 일을 처리. **81년생** 남의 말은 사흘을 가지 않으니 신경 쓰지 마라. **93년생** 오늘은 무척 행복한 날.

46년생 약사재일 약사기도를 해본다. **58년생** 과거에 소는 큰 재산이었다. **70년생** 도전을 해야 새로운 세계를 볼 수가. **82년생** 체하여서 목숨을 잃는 경우가 있듯 풍수에서 터를 잘못 건드리면 동티가 난다고 하지 않던가. **94년생** 화재를 조심.

47년생 순풍에 돛단배 가듯이 순조로운 날. **59년생** 퇴직 후 창업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려운 일. **71년생** 물질에서 얻는 행복도 소중. **83년생** 마음으로 원하는 바를 기도로. **95년생** 도망치는 노루보다 잡았던 토기를 놓치니.

김상회의 四季

보은(報恩)과 역사 ①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경우도 허다하기에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지 말라는 속담까지 있지 않은가? 우연히 종계변무(宗系辨誣)을 읽다 보니 은혜를 갚는 일이 역사까지 바꾸게 됨을 보면서 인연의 지중함과 보은에 감동하게 된다. 조선 중기 현재의 외교관에 해당하던 역관 홍순언은 명나라에 출장을 갔다. 일이 끝나자 명나라 관계자들이 손님 대접을 하고자 유곽으로 가서는 기생을 불렀다. 술상과 들어온 기녀는 소복 차림이었고 놀란 홍순언은 사연을 물었다.

자신은 류(柳)씨며 시골 출신인 그녀는 아버지와 장사를 하려 상경했다. 부친이 갑자기 사망해버렸으나 수중에 돈이 없어 고향에도 내려갈 방법이 없고 이렇게 해서라도 돈을 마련하여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자 유곽으로 온 첫날임을 얘기했다. 이 소리를 들은 홍순언은 눈물을 흘리며 수중에 있던 은화 삼천냥을 그녀에게 주며 어서 고향으로 가 부친의 장사를 지내라고 말했다. 그녀에게 손끝 하나도 대지 않자 그녀는 홍순언에게 거듭 감사의 인사를 한 후 떠나갔다. 이 돈은 출장비였던 것이어서 액수를 채워 놓지 못하자 그는 공금횡령의 죄목으로 조선에 돌아와서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 주변인들은 뭐 하느라 삼천냥을 썼냐고 그에게 물었으나 어디에 돈을 썼는지 끝끝내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던 중 선조는 조선이 건국되었을 무렵부터 명서(明書)에는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할 당시 그의 정적이었던 이인임을 엉뚱하게 그가 이성계의 아버지였으며 이성계가 아버지를 꺾고 왕이 됐다는 서술이 들어갔다. 여러 차례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150여 년이 지나도록 그대로였다. 이번에 사신을 보내 바로 잡지 않으면 아예 거기서 죽어버리라는 명령을 내려놓은 터였다. 이게 바로 종계변무(宗系辨誣) 사건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 행·편 집 인	이 장 규	편집국장	김 승 중
인 쇄 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511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615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